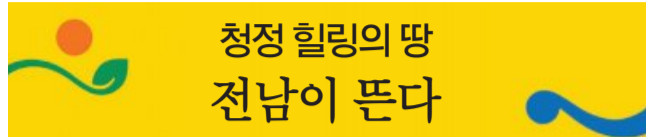


풍광 즐기며 쇼핑까지...실감나는 '전남 랜선여행'



<17> 전남 관광지, 메타버스에서도 문 연다

'디토랜드'에 여수·순천 등 관광지 구축 여행테마·구조물 활용해 게임도 즐기고

2024년까지 22개 시·군 메타버스 확대 맞집 투어·드라마 촬영지 인증샷 체험도

스탬프 투어·게임 콘테스트 등 콘텐츠 활용 가상 놀이터 넘어 전남 브랜드 알리기 목표



순천만정원의 가을 풍경.



전남 관광 메타버스 포스터. QR코드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 '전남 관광 메타버스'에 접속, 여수, 순천, 진도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전남도 제공>

'바다와 섬을 품은 서남해안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남 진도의 고급 숙박시설에서 편안한 휴식을 보내다 랜드마크 구조물을 활용한 게임을 즐기면서 지역 특산품까지 쇼핑하는 원스톱 관광이 가상공간에서 가능하게 됐다.'

전남 문화 체험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 디지털 가상 공간에 만든 '전남 관광 메타버스' 얘기다.

특히 현실 같은 가상 공간에서 전남의 관광지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먼저 체험하고 둘러볼 수 있어 전남의 대표 여행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 뿐 아니라 게임·체험, 지역 특산물 쇼핑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가상 공간에서의 전남 관광 랜드마크-전남 관광 메타버스는 전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온라인상에 마련한 가상의 디지털 전남 관광지다. 가상 공간에서의 지역 관광 뿐 아니라 게임·체험, 지역 특산물 쇼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한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이같은 가상의 '전남 관광지' 구축에 나서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토랜드'에 전남 관광 메타버스를 오픈했다.

전남 관광 메타버스에서는 우선 여수·순천·진도를 중심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의 6개 관광지를 3차원 디지털 가상공간에 구현해 내 실감나는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 여수의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해양공원을 둘러보고 유람선에 올라 여수 밤바다 불꽃놀이를 체험하고 여수박람회장 내 랜드마크인 빅오 구조물을 활용한 슈팅게임을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관광을 즐기는 스카이크루를 타고 국가정원과 순천만 갯벌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전국 10대 낙조로 손꼽히는 순천만 낙조를 타임워프(시간여행) 기능으로 체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진도를 방문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가상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 이층 무궁 승선공원과 진도타워, 진도대교 관광도 가능하다. 역사 여행을 테마로 한 명량해전 리듬게임, 울돌목 물길찾기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여수·순천·진도 뿐 아니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에는 광양·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강진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목포·보성·해남·영암·함평 등의 관광면에서도 디지털 가상세계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수세계박람회 해양공원 빅오를 배경으로 포토존이 꾸며져있다. 전남 메타버스 메인 화면. 울돌목 명량해전을 테마로 한 리듬게임 화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스카이크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순천. <전남도 제공>

전남 관광 메타버스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22개 시·군의 관광지를 메타버스에 구축, 메타버스 공간에서 고흥 남열리 서핑 가상체험을 즐기고 장흥 삼합 맞집 투어를 찾아가는다면, 구례 전은사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에서의 인증샷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전남 브랜드 글로벌 홍보에 메타커머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전남 관광 메타버스는 차별화된 전남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면서 전남의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실제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판매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천혜의 관광 자원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미래 소비자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전남의 글로벌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이를 위해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디토랜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전남을 체험할 수 있고 미니게임,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스탬프 투어, 게임 콘테스트 등에 참가하면서 전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가상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남도장터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숙박·음식점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온라인 방문객이 가상 놀이터를 넘어 실제 전남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메타커머스(Meta-commerce) 시대에 대비한 장기 전략 뿐 아니라 외부 플랫폼과 연계해 가상 놀이터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남도 막걸리, 고흥 벌고 꼬막, 여수 갯김치 등 지역 특산품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전남도 농·수·축산 종합 쇼핑몰인 남도장터로의 쇼핑을 지원하고 지역별 관광 안내버스를 통해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한편, 지역별 대규모 공연장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 체험도 가능하게 해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4년까지 22개 시·군을 망라한 '전남 관광 메타버스 월드' 구축을 마무리해 국내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